

## 2

# 혼합연구방법의 사고양식 받아들이기

여러분은 이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장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제2장에서는 혼합연구방법에 대한 몇 가지 관점을 제시하는데, 이는 이 여행 자체의 근거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혼합연구방법의 고유한 사고양식은 의도적으로 다양한 앎(knowing)의 방식, 가치부여(valuing)의 방식을 포함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연구자들의 정신모형이나 우리 사회에 자리하고 있는 정신모형에 존재하는 다름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관여함으로써 복잡한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한다. 혼합연구방법으로의 여행을 떠난 여러분은 이제 혼합연구방법의 사고양식을 만나게 될 것이며 자신의 관점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사회과학 연구는 목적으로부터 시작한다. 목적으로부터 구체적인 연구문제가 나오며 연구문제로부터 특정한 연구 설계와 방법이 도출된다(I. Newman, Ridenour, C. Newman,

& DeMarco, 2003). 현재 연구와 프로그램 평가 분야 모두에 있어서 사회과학 연구의 합당한 목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연구의 목적과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이 서로 겹치는 측면도 있지만 서로 구분되는 특징과 정당성을 갖고 있다. 연구의 목적은 명시적으로나 혹은 더 일반적으로는 암묵적으로 연구의 틀을 이루는 철학적 패러다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아 사회과학 연구에서 지배적인 목적은 자연과학의 모형을 본뜬 것인데, 즉 사회현상을 확고하게 설명함으로써 더 잘 예측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을 통한 사회개선이라는 생각이 이 목적을 잘 보여 주는데 이는 후기실증주의의 원리와 가정에 단단히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다가 다양한 연구 패러다임들이 속속 등장하고 널리 인정받게 되면서 다른 목적들도 대두되었다. 예컨대 해석주의나 구성주의에 토대한 연구에서는 지역에 근거한 지식, 현장종사자들이 가진 지식을 정당한 것으로 수용하면서 깊이 있는 상황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특징을 가진다. 비판적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더 큰 사회적 정의나 평등을 위해서 사회비평을 추구한다. 실행연구에서는 연구하는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지식을 구함으로써 참여 및 권한을 증가시키고자 하며, 특히 힘이나 권력이 적은 이들의 참여와 권한부여를 강조한다.

평가의 경우 네 가지 주요 범주로 목적을 분류할 수 있다(Greene, 2000). (프로그램, 정책, 입안, 상품이나 결과물, 수행, 인사 등의 다양한 실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는 있지만[Scriven, 1999], 이 책에서 논하는 평가는 주로 프로그램 평가를 의미한다.) 평가 목적의 네 가지 범주는 상이한 철학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며 또한 평가연구의 청중이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 의사결정이나 책무성 증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는 대체로 정책 입안자나 여타 의사결정자의 정보 요구 및 이익을 위한다.
- 평가 대상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거나 프로그램이 속해 있는 조직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는 전형적으로 관리자나 프로그램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이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 프로그램 및 그 실재에 대하여 더 깊이 있고 맥락화된 이해를 높이기 위해(대체로 행정가, 운영위원,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프로그램 참여자 등의

각기 다른 관점에서) 실시되는 평가는 프로그램 종사자의 정보 요구와 이익에 초점을 두며 때로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도 초점을 둔다.

-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평가 상황 전반을 더 정의롭고 평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평가(예컨대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관점을 더 포용적으로 통합하도록 의 사결정을 내리거나, 프로그램의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경우)는 전형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그 가족, 지역사회 전반의 이익을 위한다.

전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 및 평가의 다양한 목적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여기며 모든 개별 연구자뿐만 아니라 연구 및 평가 학계에서도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목적들이 부상하여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뒤따랐으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지배적이었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배적인 연구 목적인 설명 그리고 이에 따른 예측과 통제의 활용은 여러 방식으로 도전을 받아 왔다. ‘과학적 설명’의 본질에 대한 의문이 야기되었으며 이와 관련해 사회적 세계에서의 인과관계의 본질에 대한 질문도 제기되었다(Maxwell, 2004b; Salmon, 1998). A를 B에 인과적이고 단선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사회과학 연구에서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형태의 설명인가? 문제해결중심 학습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유아의 비판적 사고기술 발달에, 강력한 성인 역할모델의 존재를 청소년의 약물중독 감소에, 적절한 감각자극의 제공을 영아의 언어발달에 인과적, 단선적으로 연계시키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더 순환적, 반복적, 상보적인 인과성 모형에는 어떤 유형의 연구가 필요한가? 더 공간적, 시간적인 연구에서는? 혹은 더 맥락적이고 고유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경우는? 인과적 설명의 경우 맥락(context)의 역할은 무엇인가? 특정 연구에서의 인과관계 주장이 다른 지역이나 상황에 아무런 문제없이 일반화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맥락이 가진 구체적인 특성이 어떤 연구에서 발견된 인과관계의 주요 요인이라서 다른 맥락에서는 동일한 인과관계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가? 더 나아가 사회과학 연구의 역할 및 본질은 무엇인가? 가치라는 것이 각각 구분되어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든 연구결과와 우리의 앎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실재인가? 아니면 이러한 문제는 성직자와 정치인들에게 남겨 두어야 하는가?

사회과학 연구의 목적에 대한 이러한 논의와 논쟁은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들은 실

재, 지식, 특히 사회에서의 사회과학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상당히 다른, 심지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철학적 가정과 관점에 근거하고 있기에 쉽사리 해결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모든 사회과학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 목적에 대한 논쟁의 장에 어떻게 참여하며, 아울러 자신의 관점을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는 현대 사회과학 연구에서 확실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으로,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오늘날의 연구자는 자신의 정신모형과 전공내용에 가장 잘 맞는 연구 목적과 이에 따른 접근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전에는 “적절한 방법의 적절한 적용 (proper methods properly applied)” (J. K. Smith, 1983, 1985)에 대해서 배우기만 하면 정통한 사회과학 연구자나 평가자가 되었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사회과학 연구에 대한 관점이나 입장이 다양하기에, 책임 있는 연구자라면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숙지하고 자신의 연구에서 어떤 연구방법을 선택할지, 어떤 목적을 가질지 혹은 누구의 이익을 위할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오늘날의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지속되고 있는 논쟁에 참여할지의 여부, 참여한다면 어떤 식으로 참여할지를 정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연구자들은 자신과 마음이 맞는 학자나 전문가 집단에 합류하면서 다른 생각이나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거나 참견하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하기’로 작심하는 반면, 어떤 연구자들은 자신의 관점에 대해 주장하고 설득함으로써 스스로를 이러한 논쟁의 장에 온전히 참여시키기로 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논쟁은 대부분의 경우 사회과학계 내부에 건강한 생명력이 있음을 보여 준다. 반면에 또 다른 연구자들은 논쟁의 여지와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며, 어떤 특정한 관점의 우위를 주장하기보다는 ‘타자(others)’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로의 다름에 대해 논하고자 하며(Burbules & Rice, 1991) 그럼으로써 더 향상되고 더 생성적인 이해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사회과학 연구의 목적과 특성에 대하여 계속되는 논쟁에 대한 이 마지막 반응이 혼합연구방법의 사고양식을 나타낸다. 이 책에서는 모든 독자가 응용 사회과학 연구와 평가에 대한 이런 사고양식을 학습하고 자신의 연구에 비추어 그 적절성에 대해 반성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초대한다.

## 혼합연구방법의 사고양식

혼합연구방법의 사고양식(mixed method ways of thinking)이란 사회과학 연구 및 평가에 있어서 다원적인(multiplistic) 정신모형에 근거하며, 실증연구라는 더 큰 대화의 장에 함께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입장으로, 연구자가 보고 들음에 있어서의 다양한 방식, 사회적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다양한 방식, 무엇이 중요하며 가치 있고 소중한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존중한다. 혼합연구방법의 사고양식은 사회과학 연구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들 각각이 정당할 수 있다는 가정 그리고 사회과학 연구에 대한 어떤 접근방법도 불가피하게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가정에 토대한다. 더구나 사회현상은 놀랍도록 복잡하다. 존경받는 교육연구자인 David Berliner는 최근 교육현상은 물리학이나 천문학 같은 영역의 자연현상에 비해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흔히 표현하는 “이건 로켓 과학이 아니거든요!”에다가 새로운 표현을 보탬으로써 교수학습의 복잡성을 인지하고 존중하였는데 바로 “글쎄요,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그래도 교육연구는 아니잖아요.”라는 표현이다(Berliner, 2002).

이러한 복잡성을 두고 볼 때, 교육현상 및 여타 사회현상의 다면적 특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방법과 앎의 방식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혼합연구방법의 사고양식은 생성적이며 개방적인 것으로, 무한정 복잡한 사회적 세계의 주요 측면에 대하여 더 풍부하고 깊고 나은 이해를 추구한다. 혼합연구방법 사고양식은 가능한 답과 함께 질문을 생성해 낸다. 매끄러우면서 울퉁불퉁한 연구결과를 생성하고, 다양한 가능성이나 예상치 못한 일, 상대적인 확실성으로 가득하며 지금까지 들어 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들려준다(Greene, 2005a).

혼합연구방법의 사고양식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는데 바로 사회현상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라는 폭넓은 목적 지향, 다원적인 정신모형이라는 기반, 서로 간의 다름에 관여하고자 하는 대화중심(dialogic) 가치관이다. 다음에서 각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혼합연구방법의 사고양식에 따라 실시되는 연구의 주요 목적은 연구하는 사회현상의 복

잡성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혼합연구방법의 사고양식에서 더 잘 이해하기 (better understanding)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어서 특정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다. 혼합연구방법에서 더 잘 이해하기란 다음을 포함한다.

- 올바르게 연구하여 연구결과의 타당도와 진실성(credibility)을 높이는 것
- 연구를 더 잘 함으로써 더 넓고 깊고 통합적인 이해, 인간 현상의 복잡성과 유연성을 중점적으로 존중하는 이해를 생성해 내는 것
-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을 흔드는 것, 의문시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 당연시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다양하고 때로 불협화음을 내는 관점과 시각에 관여하는 것
- 연구의 정치적 측면과 가치 측면을 전면에 드러내는 것, 그저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에 대하여 관여하여 우리의 대화를 진전시키는 것

혼합연구의 다양한 목적, 즉 다양한 형태의 ‘더 잘 이해하기’는 연구문제, 연구방법의 조합, 분석방법에서의 다름과 연관된다. 혼합연구의 목적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제6장에서 좀 더 자세히 기술하고 논할 것이다.

#### 예시

Patricia Phelan(1987)은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어떻게 더 잘 이해하도록 해 주는지를 보여 주는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초기 혼합연구의 실례가 된다. 그녀의 연구는 특히 Geertz(1983)가 말하는 서로 다른 관점 간의 “변증법적 진보(dialectical tacking)”를 예시하는 것이다.

Phelan의 연구는 자녀에 대한 성적 학대인 근친상간 사건의 ‘의미 체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근친상간 경험이 있는 500여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 교육처치 프로그램에서 집중적인 문화기술 연구를 시도하였다. Phelan은 프로그램에서 인턴 상담자로 수개월간 시간을 보내면서 프로그램 참여자와의 생애사 면담(life history interviews)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프로그램 맥락 속에서의 문화와 언어를 배웠다. 최초의 면담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그래서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이러한 면담을 통해 근친상간 관계에 있어 친부와 양부 간의 차이점에 대해 직감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친부와 양부의 면담내용에서는 딸을 객체화하는 현상이 나타난 반면 양부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로맨틱한 연애편계로 묘사되곤 하였다.

이에 따라 Phelan은 이러한 자신의 직감에 대하여 더 체계적이고 전형적인 방법으로 확인해 보고자, 상담자들을 면담하고 또한 지난해에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가족들을 대표할 수 있는 102가족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가족들의 근친상간 관계의 특성에 대한 양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예컨대 관련된 자녀의 수, 학대가 시작되었을 때 자녀의 연령, 그 학대가 완전한 성행위에까지 이르렀는지의 여부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변인 각각에 있어서 친부와 양부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helan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양적 차이는 그 이전에 질적 연구를 통해 자료를 먼저 수집하지 않았더라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더 나아가 양적 차이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아이디어로 되돌아가는 것이 필요했었다. (중략) 질적 연구에서 이러한 두 유형의 가족에서 이루어지는 근친상간의 과정에 대해 일관성 있는 이해를 시작할 수 있었다.(p. 40)

### 다원성에 대하여

1985년에 출판되어 높이 평가받고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편저의 한 장에서 Thomas Cook은 ‘후기실증주의의 비판적 다원주의’(Cook, 1985)에 대한 입장을 기술한 바 있다. Cook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연구를 실시하는 데 한 가지 방식이 ‘올바른’ 것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하던 세상에서는 과학적 연구의 실재가 쉬웠다. 연구자들은 그저 올바르게 하는 것을 따르기만 하면 되었다. 무엇이 정확한 실재를 구성하는지에 대하여 완전한 확실성이 부재하는 오늘날, 관점과 방법상의 다원주의를 지지하게 된다.(p. 22)

이 장에서는 오늘날의 연구방법 문제에서 가장 절박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다룬다. 과

학적 실제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에 대하여 철학자, 역사가, 사회과학자들이 설득력 있게 비판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를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중략) [이러한 문제를] 가장 격심하게 절감한 이들은 사회과학과 사회정책의 중간영역[즉 프로그램 평가]에 있는 이들이다.(p. 21)

Cook은 먼저 ‘실증주의’에 대한 철학적 반론에 대해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1960년대 미국에서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라는 슬로건하에 이루어진 사회개혁의 일환이었던 빈곤퇴치 프로그램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실증주의에 근거한 실험방법을 사용했을 때 사회과학자들이 심각하게 직면했던 문제와 어려움에 대해 반추한다. 두 가지 역사 모두 일반적인 사회과학 및 프로그램 평가 관련 저서에 잘 기록되어 있다 (Cronbach & Associates, 1980; Gage, 1989; Pressman & Wildavsky, 1979; Weiss, 1972 참조). Cook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철학의 역사와 프로그램 평가의 역사 모두에서 사회과학 이론과 관습적인 방법, 특히 무선화 실험과 조사연구의 공신력 감소를 목격할 수 있다. 그렇지만 Cook은 “감소가 소멸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즉 이러한 역사가 “전통적인 방법을 왕좌에서 물러나게 했지만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다.”(pp. 37-38)라는 것이다.

이어서 Cook은 자신의 다원주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다원주의의 근본적인 원리는 연구문제를 정하거나 방법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그 모두를 선택함으로써 가장 유용하거나 가장 진리일 법한 것에 ‘삼각측정(triangulation)’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인 제약으로 여러 가지를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최소한 하나 이상은 선택해야 하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많은 문제나 방법을 선택하여 유용한 질문 혹은 진정한 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p. 38)

이 이론은 다원적 조작주의(multiple operationalism)라는 기존의 연구 실제 (Campbell & Fiske, 1959; Webb, Campbell, Schwartz, & Sechrest, 1966)에 사회과학 연구 실제의 아홉 차원을 더하여 전부 열 가지로 제시된다.



1. 주요 구인(constructs)<sup>1)</sup>을 다양한 방법(다원적 조작주의)으로 측정하고 다양한 유형의 구인(예 : 행동적 구인과 정신적 구인)을 측정한다.
2. 다양한 연구방법(양적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모두 포함)을 활용한다.
3. 연구자를 착각에 빠트릴 수 있는 하나의 한정적인 연구에 의존하기보다는 전체 연구 프로젝트 안에 여러 개의 상호연관된 소연구를 포함하도록 계획한다.
4. 계획한 연구 외에 외부에서 실시된 여러 연구를 종합한다(선행연구 개관이나 메타 분석 활용).
5. 단순한 일변량 인과모형보다는 복잡한 다변량 인과모형을 구성한다.
6. 단지 하나보다는 여러 모형과 여러 대립가설들을 경쟁적으로 검증한다.
7. 연구문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정책결정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자들을 활용한다.
8. 연구문제와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론 및 가치체계를 다원적으로 활용한다.
9. 주요 연구자료를 검토하는 데 다양한 분석방법과 여러 명의 분석자를 활용한다.
10. 하나의 연구 안에서 여러 다양한 쟁점을 살펴볼 수 있도록 목표가 다각적인 연구를 실시한다.

사회과학 연구와 이러한 연구에서 나올 수 있는 지식에 대한 Cook의 다원적 개념은 대답하면서도 보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사에 고유하게 내재된 맥락적 수반성, 복잡성, 가치 다원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종전보다 과감해졌다고 할 수 있지만 “대안적 해석에 대한 다원적 입증 및 반증”(1985, p. 40)을 여전히 중시한다는 점에서 보수적이다. 그는 “다원주의는 어떤 주장이 참일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알아봐야 할 것들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는 수단이다.”(p.46)라고 하였다. 따라서 Cook의 다원주의는 서로 다른 결과의 여지를 제공하는 하지만 이를 골치 아픈 ‘실증적 퍼즐(empirical puzzles)’로 간주하고 삼각측정을 통한 수렴적 진실(convergent truths)을 중시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Cook의 다원주의는 혼합연구방법 사고양식에 내재되어 있는 다원주의적 정신모형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떤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사실 저자에

1) 역주 : 저자는 ‘변인’이나 ‘변수’라는 용어 대신 사회적으로 구성된 가설적인 개념이라는 의미의 ‘구인(construct)’이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있음에 주목하기 바란다. Construct는 ‘구성개념’ 혹은 ‘구성요인’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나 이 책에서는 구인으로 번역함을 밝혀 둔다.

계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Cook은 여전히 실재론과 후기실증주의의 진리추구라는 틀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 (다원적인 연구문제, 방법, 분석, 이론, 가치에 개방적이기는 하지만) 앎의 방식과 지식의 종류에 대한 철학적 대안을 포용하지 못한다. Cook식의 다원주의에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 대화에 근거한 해석학적 이해 혹은 비판적 인종이론 비평 등이 자리할 여지가 없다. 최소한 지식의 형태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혼합연구방법의 사고양식에서는 지식에 대한 다원적인 철학과 이론을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다양한 인식론적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근본적으로 혼합연구방법의 다원주의는 다양한 다원적 앎의 방식의 정당성, 어떤 하나의 앎의 방식이 갖는 편파성, 따라서 더 포괄적인 직관과 이해를 위해서 지식에 대한 다원적 입장이 가지는 바람직성을 받아들인다. 물론 Cook의 다원주의와 상당 부분 공통되며 그의 이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다원주의적 정신모형은 더 확장된 것이며 더 포괄적이라고 본다.

더구나 혼합연구방법의 사고양식을 위한 근거로서 다원주의는 수렴, 일치 혹은 합의의 틀을 더 중시하지 않으며 따라서 삼각측정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다름, 불일치, Cook이 말하는 '실증적 퍼즐'을 동등하게 존중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다름이나 불일치는 혼합연구에서 온전히 생성적인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려 깊게 이루어진다면 혼합연구는 복잡한 퍼즐과 패러독스, 충돌과 갈등을 낳을 수 있으며, 의도와 노력을 통해 새로운 관점과 이해, 종전에는 상상치 못했던 통찰, 독창적이고 빼어난 지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사회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은 단연코 인간의 창의성과 직관적 사고력 전부를 요구한다. 고전적 사례연구들도 이러한 측면에서 혼합연구방법이 가지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Jick, 1983; Louis, 1981; Maxwell, Bashook, & Sandlow, 1986; Phelan, 1987; Trend, 1979). 혼합연구방법에서의 다원주의가 의견일치와 함께 불일치나 불협화음을 포용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회과학 연구를 다름에 대한 의미 있는 관여(meaningful engagement with difference)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다원주의를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게 해 주는 것도 바로 이 두 번째 이유에 있다.

고전적인 혼합연구의 대표 사례를 제시하고, 이어서 다름에 관여하기가 갖는 중요성

을 더 상세히 살펴보겠다.

#### 예시

혼합연구방법의 발전 초기에 이루어진 한 정책 연구가 혼합연구방법의 사고양식에 다원주의가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초기 연구들 중에서도 이 연구가 혼합연구의 고전으로 간주된다(Trend, 1979).

1972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에서는 저소득층용 주택에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부여하는 대신 저소득층 가구에 주택수당을 현금으로 직접 주는 복지정책을 실험하였다. 이 정책은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저소득층 가족이 밀집된 공공주택지에 계속 의존하며 살기보다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복지정책 실험에 대하여 세 가지 연구가 실시되었다. 한 연구에서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수혜자가 주택수당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조사하였으며, 혼합연구의 예로 소개하고자 하는 세 번째 연구에서는 현금수당을 수혜자에게 직접 주는 방식에 연관된 운영 실재를 검토하였다. 세 번째 연구를 위하여, 미국 전역에 걸쳐 다양하게 위치한 8개 지역 공공기관에서 이 주택수당 프로그램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설계하여 실시하였다. Abt Associates에서 이 행정 측면의 연구를 수주하게 되었으며, 가장 효과적인 실재를 찾기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지침으로서 12가지 분석 및 운영기능(예: '감사 및 통제')을 활용하였다.

연구 설계에 수준 높은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 모두가 포함되었다.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구를 추적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주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주택 수준도 평가하였다. 아울러 실험 첫째에 관찰자 한 명씩을 각 지역기관에 배정하였다. 관찰자의 임무는 각 기관의 행정 실재와 일상 흐름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의 양적 결과와 질적 과정에 대해 각각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관련된 정보를 종합하여 정책 권고사항을 제공하는 보고서도 작성하도록 하였다.

혼합연구방법 측면에서 여덟 지역 중 한 곳, B 지역이라 불린 곳에 대한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 보고서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B 지역에는 세 곳의

지부가 포함되었는데 두 곳은 시골, 한 곳은 도시 지역에 위치하였으며, 도시에 위치한 지부가 본부 역할을 하였다. 첫해에 수집한 양적 자료에 따르면 B 지역의 도시지부가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기능하였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관찰 보고서는 실제 프로그램의 실시 그리고 내부관계 및 윤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문제점으로 (1) 이 지역을 관할하는 해당 기관에서 실적 위주로 최대한 많은 가구(900 가구)를 처리하는 데에만 거의 전적인 초점을 두는 데서 야기된 갈등, (2) 수준 이하의 주택도 허용하고 등록된 가족에게 상담이나 지원 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않게 되어 있는 데 대한 프로그램 직원들의 우려, (3) 도시지부가 계약수주를 받은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원가정의 인구학적 균형을 맞추고자 혹은 가족의 등록을 감축하라는 지시를 받음에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야기된 인종차별 비난 등이 지적되었다. 이 지부에서 일했던 주택상담 직원 중 많은 수가 첫해가 지나면서 사임했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할 만하였다.

한편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에 소재한 Abt Associates로 돌아와, B 지역의 관찰자가 처음 제출한 내부보고 문건에서는 전체적인 불화, 특히 행정적 무능력과 무감각뿐만 아니라 상부기관과 도시지부 간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보고에 대해 내부검토자들은 정책과 관련이 없는 이질적인 갈등에 집중하고 이 지부에서 이루어진 12가지 분석 및 운영기능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려를 표했다. 이 시점에서 참여가구 수 이외의 양적 자료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B 지역 관찰자는 전체 사례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영기능에 대해 더 완전하게 다루라는 지시를 받았다.

5개월 후, B 지역 사례연구 보고서의 초안은 다시 거부되었다. 이 보고서는 지부 내부의 불화에 대해서는 덜 강조하였으나 대신 직원의 과중한 업무량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기를 원하는 상부기관의 고압적인 간섭”(Trend, 1979, p. 76)에 집중하였다. 그런데 이때 나온 양적 분석에서는 B 지역이 많은 수의 가정을 참여시켰을 뿐만 아니라 소수 집단을 적절하게 포함시켰으며,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고압적’이더라도, 이 상부기관이 결과를 달성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B 지역 가구의 주택 수준도 사실상 향상되었다는 연구자료도 나왔다. 그러자 B 지역 관찰자를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기 시작하였다.

B 지역 사례연구 보고서를 몇 차례 더 수정하였지만 프로젝트 핵심연구진은 모두 거부하고 되돌려 보냈다. 최종 수정판에서는 프로그램이 달성해야 할 목적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즉 상부기관은 결과를 중시한 반면 지부에서는 서비스와 삶의 질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렇지만 바로 이때 나온 주택 수준 자료분석에서 “B 지역 수혜자들은 주택 수준 측면에서 향상되어 [전체 프로젝트에서] 2위를 기록하였다.”(p. 77)라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편들기가 시작되었다. B 지역 관찰자는 자신의 해석이 근본적으로 옳다고 주장하였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것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이었다. (중략) 또 다른 관찰자도 결과를 측정할 것이 전체 진실을 말해 주지 못하며 양적 방법은 ‘쓰레기’이고 인간의 행동을 ‘단순한 숫자’로 환원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B 지역] 관찰자는 이제 연구진들 사이에서 완전히 평판을 잃게 되었다.(p. 77)

위와 같이 저술한 Trend는 그 관찰자를 신뢰하기도 하며 책임도 느끼고 있었기에 다음과 같은 퍼즐을 맞추어야 했다. 어떻게 한 프로그램이 “그토록 감탄할 만한 결과를 산출했는데 (중략) 모든 관찰자료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실패라고 나타날 수 있을까?” (p. 78). 이 퍼즐을 풀기 위하여 직원 업무량, 수입 및 가족 수 등의 가족관련 자료점검, 업무 효율성 등을 포함하여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 간의 심각한 이탈 지점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계속하였다. 도시지부와 두 시골지부 간의 비교도 이루어졌다. 다른 자료들도 분석했는데 예컨대 주택시장의 경향분석도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설이 생성되었는데 바로 도시지부의 효율성은 착시현상이었으며 주택상담 직원들은 원하는 서비스 중심 업무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최종 사례연구 보고서에는 이렇듯 상당한 추가분석 및 해석이 포함되었으며, 주택 수준에 미친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여지를 남기면서 참여가 정들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주택을 찾았다는 사실을 기록하였다. 이제 주택 수준에 대한 양적 자료가 사실상 잘못된 것이며 신뢰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것이다.

이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Trend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각기 다른 유형의 자료에 근거하여 도출된 설명이나 근거가 서로 충돌한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직면했던 어려움은 관찰추론과 통계추론의 속성에서의 다름뿐만 아니라 전체 연구팀 내의 선호와 편향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는 데 있었다. 해결책은 세 번째 설명을 통해 기존 설명들을 뒤집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는 데는 지적 우수성이 아

나라 약간의 현명함과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되었다.(p. 83)

독자들이 혼합연구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이 글의 전문을 읽어 보기 바란다.

### 다름에 관여하기

오늘날 사회과학 연구자라면 다양한 대안 중에서 연구 목적과 접근방법을 잘 선택하고 정당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대 연구자들은 사회과학 연구의 정치적 요소와 가치에 대해서도 깊게 생각해야 한다. 다양한 연구 전통에 각기 다른 가치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예컨대 후기실증주의는 여전히 중립성과 객관성을 중시하고, 실증적 진리명제에 대한 개방적 비판에 가치를 두는 반면(Phillips, 1990; Phillips & Burbles, 2000), 페미니즘 전통에서는 가부장제를 해체함으로써 여성과 여아의 복지를 향상하는 데 중심 가치를 두고 있다(Harding & Hintikka, 1983). 사실, 많은 후기실증주의자들은 객관성, 중립성, 개방적 비판이야말로 과학의 진정한 가치이며 다른 모든 가치는 실증적 검증이나 이성적 논쟁 혹은 판정을 할 수 없기에 과학에서 동떨어진 것으로 여긴다(Phillips, 1990). 더구나 프로그램 평가 영역에서는 평가 실제란 본질적으로 논쟁적이며 정치화된 맥락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정치적 논란과 정책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Cronbach & Associates, 1980; Weiss, 1998) 또한 널리 인지되어 왔다. 일부 평가자들은 평가가 뜨거운 쟁점에 대한 정치적 담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한 담론의 성격과 내용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House, 1993)고도 여긴다.

이 절에서는 사회과학자, 특히 미국의 공공 사회기관 및 교육기관의 평가자로서 나 자신에게 영향을 주고 동기를 부여해 주는 가치관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치의 추구가 혼합연구방법의 사고양식에 대한 저자의 비전에 영향을 준다. 사실상 이러한 가치 추구는 사회과학 혼합연구방법에 대한 나의 생각이 진화해 온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나의 관점에 대하여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데, 이는 저자의 관점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책에 적힌 글과 생각들이 본래의 의도대로 해석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내가 지도하는 모든 학생들의 논문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연구자의 이야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를 ‘자신의 연구에서 자신이 어디에서 있는지 찾기’

라고 부른다.

혼합연구방법의 사고양식에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서로 간의 다름에 관여해야 한다는 나의 가치관은 세 가지 서로 연관된 차원, 즉 철학, 방법론, 관념론에 근거한다. 이어서 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이는 사회과학 연구가 공공의 선(public good)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가치관(Greene, 2005b)에 의해 전체적으로 동기화된 것이다.

첫째, 철학적 측면에서 혼합연구방법의 사고양식은 인식론상의 다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데 이는 (1) 후기실증주의 입장에서부터 마르크스주의-페미니즘적 사회비판이론까지 다양한 앎의 방식을 존중하며, (2) 서로 다른 인식론적 전통으로 인한 뿌리 깊은 상호반박을 이해하고 존중하나, (3) 이러한 반박논리에 사로잡히거나 어느 한 쪽, 즉 한 가지 앎의 방식을 선택하여 편을 들어야 한다고 느끼지 않고, 그 대신 (4) 동일한 연구 속에 다양한 앎의 방식들을 초대함으로써 더 깊이 있고 생성적이며 풍부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Greene & Caracelli, 1997a). 물론 여러 개의 다양한 앎의 방식은 긴장을 유발할 것이다. 그러나 혼합연구방법의 생성적 가능성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긴장에 있다(Greene, 2001; Greene & Caracelli, 1997a). 더구나 이러한 긴장관계 중 일부는 객관주의나 상대주의 같은 매우 추상적인 철학적 관점의 차이를 사회과학 연구에서의 특수성과 일반성, 근접과 거리, 독특성과 대표성 같은 더 실질적이고 양립 가능한 입장차로 재구성될 수 있다(Bryman, 1988; Greene & Caracelli, 1997a). 이러한 아이디어는 제4장과 제5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따라서 나의 혼합연구방법에 대한 인식론적 관점은 인식론적 긴장관계에 능동적으로 관여하며 단지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여는 다툼이나 경쟁이 아니라 대화를 위해서이다. 요지는 누가 이기는지가 아니라 서로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는 것이다.

최근 Joe Kincheloe(2001)는 이와 유사하게 브리콜라주(bricolage)라는 개념(Denzin & Lincoln, 2000을 토대로 함)과 전통적인 학문 간 경계를 넘어서는 연구의 중요성을 근거로 질적인 사회과학 연구를 옹호한 바 있다.

브리콜라주 방식의 연구과정은 다름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포함한다. 여러 가지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연구자는 종종 특정한 학문영역 안에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정(assumptions)에 구속되지 않는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알